

이렇게 들었다

18일로 연기됐던 총무원장 선거가 또다시 무산되는 등 11월 있었던 조계종 사태 이후 조계종의 내부분란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각 재가 단체들이 모든 승가가 사심을 버리고 합심화합하여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간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자들이 스님들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여법하게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승가 본연의 자세다. 출가하는 누구나 이런 서원으로 산문에 발을 들여 놓는다. 이런 초발심을 되찾는다면 작금의 혼란은 풀기 어렵지 않은 문제다. 초발심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초발심을 받은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이 초발심을 받은 보살이말로 실은 부처님인 것이다. 〈화엄경〉

■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함이고,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고,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고, 넷째는 연인의 정을 일으킴이고,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다. 〈우바새계경〉

■ 허공은 두루 뒤덮지 아니함이 없나니, 보살의 발심도 이리하여 온갖 중생을 뒤덮지 아니함이 없다. 중생의 세계가 무량무변하여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살의 발심도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있을 수 없다. 〈발보리심경론〉

초발심

보리를 향해 흔들리지 말라

■ 보살이 생겨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념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니, 여래가 살해사 한 겁(劫)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화엄경〉

■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 보살은 마땅히 네 가지 더럽히는 작용이 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이 냇인가? 첫째는 번뇌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둘째는 명리(名利)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셋째는 하승(下乘·작은 뜻)이 더럽히지 못하는 것, 넷째는 악한 중생들이 더럽히지 못하는 일이다. 〈대승사법경〉

■ 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여러 지혜를 닦아,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발심한다. 항상 청정한 태도로 온갖 부처님을 공경·존중하며,

법과 승(僧)에도 이같이 하여 지성으로 공양하기 위해 발심한다. 〈화엄경〉

■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 너희들은 마땅히 법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우유와 물이 잘 혼합되듯 화합하라. 〈장야왕경〉

■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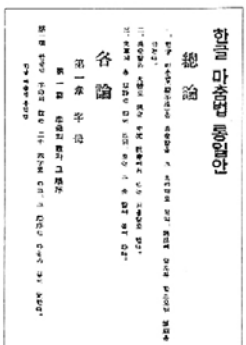
■ 사문답지 못하면서 사문이라 말하고, 범행(梵行)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고 말하고, 정법을 들지 못했으면서 정법을 들었다 말하며 맑고 깨끗한 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불 속에 뛰어들지언정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증일야왕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년11~12월)

강습회 준비, 교과서 구입

- 1945년 11월18일(일)

이만홍 스님과 이아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스님이 들어와 하던 말을 중단하였다. 이만홍 스님이 아가 말한 주지 다음 직책인 감사(監事) 정문환 스님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이번 강습회는 송만암 주지스님의 뜻을 받아 감사가 주관하는 듯 보였다.



○한글강습회의 교재로 쓰인 '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습회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백양사에서 진행중인 행사가 끝나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습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 이것저것을 물었다. 특히 핵심은 북한면 약수리에 있는 학교에서 빌려올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 그때 공금도 함께 빌려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공금이 있으면 한글노래를 가르쳐 졸업식 때 합창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에 정문환 스님은 절에도 공금이 있기는 하나 조금 망가져 고쳐야 한다면서 고치든지 빌려오든지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다.

한글강습회의 수강생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도 공금했다. 대략 보통학교 졸업 정도를 보통부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를 고등부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형편을 봐서 결정하자고 했다.

강습회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 1945년 9월 11판을 주로 하고, 최현배의 <한글의 바른 길> 1945년판을 보충용으로 할 생각이다. 책을 서울에 있는 조선어학회에 서면으로 부탁해 좋았다고 하자 내일쯤 사람을 시켜 가지러 보내겠다고 했다.

'북하청년동맹' 결성식

- 1945년 11월19일(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문이 열린 향적전에 '사회과학강습회'라고 쓴 것이 보였다. 잠깐 엿보니 세워 놓은 현판이 '북하청년동맹(北下靑年同盟) 결성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면단위 청년들이 결성을 하는 듯 보였다. 불어와서 해화전문학교에서 등사를 하였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들여 보았으나 어려워 눈이 감겼다.

국문과 석첩, 사원학교

- 1945년 11월22일(목)

아침에 이만홍스님이 와서 광주에 같이 가자고 한다. 스님과 함께 길을 가며 0야기중에 한글문화보급회를 상설기관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왕 사회사업으로 하려던 줄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방침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백양사가 아주 조용해 공부에 잘 될 것이니 월요일이면 산에 가고 강에 가서 감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짓도록 하면 한글도 잘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소질도 개발할 수 있고 국사학과 불교과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만홍 스님은 영어과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군산에서 강습회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영어과는 대만 원이고 국문과는 1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국문의 보급과 연구를 위해 국문과에서 국사 불교 영어 등을 넣어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은근히 절의 재정이 걱정되어 절의 재정은 근심없느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절의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계속>

제언

시청자운동은 인간방생

어느 사람이 가게에 들러 빵을 사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 빵이 변질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가게에 알려주어서 그 빵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도 그와 같다.

흔히 '시청자 시대'라고 말한다. 어렵게 표현할 것도 없이, 시청자 시대란 시청자가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시청자의 권리와 책임이다.

시청자의 권리는 좋은 방송을 수용하는 데 있다. 좋은 방송이란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공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방송이다. 시청자의 책임이란, 방송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며,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방송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주는 책임이다. 시청자는 방송에 대하여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는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히, 불자들은 방송이 만들어내는 삼보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불자들은 방송에 의한 불교왜곡이나 편파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고 개선해야 하는 사천왕과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방송문화의 한 단계 높이는 뜻 있는 통찰이요, 진정한 인간방생이다.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 회장

열린마당

군 종교학학

군내 종교화합을 위한 세미나가 17~18일 국방부 군종실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군의 정신전력 증강과 종교화합의 새로운 모델 제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군내의 종교자들은 전 해병

대사령관의 종교편향 발언, 군종사병들의 공공장소 집단선교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내 종교학들은 심각하다'는 것이 군종관계자의 진단이다. '군종교화합의 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월논쟁 중단 대화로 화합을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

종교갈등의 본질은 대화부재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 점이 종교갈등의 근본원인이다. 한국에서의 종교적 대화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며, 본질적이기보다는 현상적이다. 따라서 대화의 패턴은 보다 지성적이어야 하며, 그 주제 또한 보편적이어야 한다.

종교끼리의 외형적 비교나 우월논쟁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에서 진여(眞如)를 향해 갈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종교적 진리를 얼마만큼 내면화했는지 또 실현했는지 하는 점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한다.

타종교 배타는 믿음의 미성숙



정명조 (천주교군종교구장)

군종장교가 군을 또 신앙인을 각각의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그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언정, 참뜻에서의 성직자는 아닐 것이다.

자비의 실천이 불교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손의 안락처럼 가까운 것이다. 참다운 군종장교들 사이에서는 화합과 친교와 우정이 있을지언정 배타적인 무한경쟁은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출가의 첫 순간의 그 설레던 마음으로 새롭게 인식할 것과, 사람과 자비의 실천의 첫 걸음으로 종교적 다원성을 기쁜 마음으로 계안기를 제안한다.

다원주의 수용 가치혼동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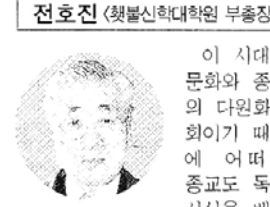
윤이훈 (서울대 종교학교수)

이 땅의 종교인들은 다종교 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다만 자기 종교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아왔다. 다종교 상황에서는 다원주의 원리를 수용하는 길만이 가치혼동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대종교들은 각 종교들이 지닌 유일한 정신적 권위인 도덕적 권위를 사회에서 확보하고 또 행사해야 한다. 이제는 혼탁해진 사회 안에서 빛을 발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들이 제각기 도덕적 모범이 되는 경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오늘의 혼돈이 극복되고 내일의 성숙한 사회를 창조하는 역사적 안내자가 될 것이다.

종교-정치 결합 종교갈등 심화



전호진 (횡성신학대학원 부총장)

이 시대는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독점 사상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종교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선거때만 되면 자기 종교인들을 정치에 진출하도록 종교적 힘을 동원한다면 여기에 사회갈등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각 종교단체는 한 신도가 자기 종교의 상징을 훼손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해 마치 그 종교 전체가 개인적 것처럼 문제를 확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종교간 선의의 경쟁을 제안한다. 종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

공 고

대한불교 법성종을 창종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①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 서 덕 압

② 원로원장 : 법주 박 영 식 ③ 총무원장 : 덕암 서 장 근

④ 종회의장 : 혜승 고 대 환 ⑤ 교육원장 : 만원 이 흥 중

⑥ 포교원장 : 재령 김 선 중

⑦ 총무부장 : 혜운 안 병 엽 ⑧ 규정부장 : 혜운 김 승 만

⑨ 교무부장 : 혜선 류 지 형 ⑩ 재무부장 : 옥천 유 옥 순

⑪ 포교부장 : 보혜 조 보 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 대동 황토방 매트

황토와 옥의 신비가 과학적으로 입증!!

침대, 안방, 거실, 어디서나 사용가능!!

현대인의 건강비결 황토 방매트에 맡기십시오!!

불자들에게 특별할인!

스트레스와 세멘트문화에 찌들린 현대인!!
옛날 초가집 황토를 그대로를 재현시킨 황토방!!
당신을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초장파란 교번재장이라고도 하며 자정의 강도가 일정주기로 변화하는 변동자장으로 체내의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재생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옥 매트는... 옥에서 발산하는 파동이 우리 인체에 골고루 침투 공진공명 작용으로 조직의 부화, 혈액순환개선, 혈액의 약알카리화, 체내 유해노폐물 제거 등 건강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대동 황토방은 대동 황토는 독성이 없고 원적외선 방출로 병명의 재생, 소생각을 하여 우리몸에 힘을 넣어주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줍니다.

수요법은 솜은 천지와 자정이 얽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뒤통을 누려주며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 독소를 배출, 노화방지,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초장파란 매트와 주문생선으로 한정수량만 공급합니다.

구 분	정 가	할 인 가
초장파란 옥황토	780,000	380,000
황토매트KING	730,000	350,000
황토매트(2인)	390,000	290,000
황토매트(1인)	290,000	198,000

* 초장파란 황토매트 주문분에 한하여 솜 매트방식(35×50cm)증정

대동 황토방 Tel. (02)454-0646(代)